

가산지구 상·하수도 통합 시공한다

군산시는 하수도 사업 시행 시 상·하수도를 통합 시공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부 공모사업인 통합 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옥구읍 일원의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100억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58억을 투입해 오염하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330톤/일, 오수관로 14.5km를 설치하여 분류식 관거로 정비하게 되며 지난 1월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마을하수도 정비·불량 수도관 교체 병행 추진키로 군산시 3.3억원 예산 절감·시민 불편 최소화 기대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동시에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불량 수도관 공사 구간도 수도과와 협의 후 교체구간 및 노선을 확정하여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사업으로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3개 마을 140세대, 290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되는 불량 수도관 교체 구간은 4.6km에 이르며 상·하수도 공사 통합 시행으로 3.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절감된 예산은 구시가지 일원의 불량 상수관로 교체공사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래 군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하수도 분야 사업 추진시 도로굴착 총괄부서(건설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시기 등을 검토하고, 예산의 중복투자 및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수도, 도시가스, 전기, 풍가통신 등)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2016년 대야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도 상하수도를 통합 시공하여 18억을 절감하여 노후관 교체사업에 재투자한 바 있다. /군산=장현기 기자

무너·선유·장자도 광역상수도 공급 시작

고군산군도 무너, 선유, 장자도에 광역상수도 공급 되어 도서 지역 식수난이 해결된다. 고군산지역 광역상수도 공급공사는 지난 2011년도부터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착공되어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되는 금년 10월부터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초 극심한 가뭄으로 무너도, 선유도 지역 저수지와 지하수가 말라 식수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무너도 마을상수도관을 광역상수도관에 임시로 연결, 당초 계획인 10월 보다 3개월 앞당겨 이달 1일부터 임시 통수를 시작으로 현재 무너도, 선유도, 장자도 전지역에 24시간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다. /군산=장현기 기자

군산시, 군봉 등 3개 상수도 배수지 보수공사 추진

군산시 수도과는 장기간 사용(14년 이상 경과)으로 배수지 내부 도장들 뜸 및 탈락,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재료분리 등으로 내구성, 사용성이 저하되고 있는 군봉배수지 외 2개소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총 36억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수지 내부 재도장 등의 보수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현재 운영중인 상수도배수지 8개시설 중 나운배수지 외 4개소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20억5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단면복구 및 표면방수 등 보수·보강을 완료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상수도 공급시설인 군봉배수지(42,000톤)에 대해서는 23억3천6백만원, 오식도배수지(14,000톤)에 10억7천2백만원, 대야배수지(4,000톤)에 24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면적인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상수도 배수지 보수 공사를 통



군산시 수도과는 군봉배수지 외 2개소에 대해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총 36억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수지 내부 재도장 등의 보수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사용성의 저하를 방지하고 안전성, 공용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군산시 수도과 관계자는 공사기간

중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급수공급체계 점검 및 철저한 준비로 정상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면서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장현기 기자

익산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본설계(안) 완료

익산시가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이하 행복센터) 신축 기본설계(안)이 이달 초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모현동 행복센터 신축규모는 지상4층, 연면적 2,604㎡에 주변 주민휴게공간을 조성하고, 47㎡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이와 별도로 평상시 저류시설 내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해 주변 교통체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센터에는 민원실, 주민자치위원실, 주민사랑방, 작은도서관, 교양 강좌실, 주민소통공간 등이 조성된다. 시는 설계 완료 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8년 상반기에 착공,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시범운영

이달 말부터... 익산역-미륵사지-왕궁유적-보석박물관-익산쌍릉 순환

익산시가 KTX익산역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익산백제유적지를 연계한 순환형 시티투어를 전복에서 최초로 시범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빠르면 이달 말 운영 예정인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는 그동안 관광객 만족도 조사, 여행 전문가 팸투어, 여주시, 울산시 등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주요관광지를 연계하는 시티투어버스 필요성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운행노선은 익산역-미륵사지-왕궁

유적-보석박물관-익산쌍릉을 순환하며 오전 10시 30분부터 60분 간격으로 1일 7회 정도, 금·토·일 주 3회 운영할 예정이다. 탑승료는 1일 1인 기준 성인 4,000원, 학생과 경로우대자, 군인 등은 2,000원, 20인 이상은 단체는 3,000원이며 1일권으로 하루 동안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패키지형 정기시티투어버스의 숨은 보석 찾기 및 세계유산 코스와 순환형 시티

투어버스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수단 없이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했는데, 올해 관광도시 원년 선포 이후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운영으로 내일, 개인 여행자 등 대중교통 이용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증대하게 됐다”며 “시티투어버스를 세계유산 백제 이미지로 맵핑해 시 이미지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자연실록 '실록홈즈' 마케팅 공모전

8월 31일까지 접수... UCC·레시피·전략기획서 부문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이 “친환경 프리미엄 닭고기 브랜드 자연실록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마케팅 공모전 ‘실록홈즈’를 개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하림 자연실록은 HOME(집)에서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알리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담은 ‘실록홈즈’ 마케팅 공모전은 평소 하림 자연실록 제품을 즐기던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단체로 팀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다. 응모분야는 UCC 영상, 레시피, 전략기획서 총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자연실록 제품을 활용한 특색 있고 재미있는 UCC영상, 맛과 건강 및 편의성이 동반된 하림 자연실록 닭고기 요리 레시피,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전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31일(목)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운영사무국 이메일(harim-natural@naver.com)로 접수 가능하다. /익산=장양원 기자

며 상세 모집요강 확인 및 지원서는 하림 자연실록 마케팅 공모전 홈페이지(www.harimcontest.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 UCC영상 부문 1등(1팀)에게는 200만원, 2등(2팀)에게는 100만원, 3등(3팀)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레시피 및 전략기획서 부문 1등(1팀)에게는 100만원, 2등(2팀)에게는 50만원, 3등(3팀)에게는 30만원, 모든 부문을 통틀어 최고 점수를 획득한 최우수 실록홈즈 수상자(팀)에게는 총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등 총 상금 1,430만원에 수상자(팀)에게는 1년간 약 50만원의 하림 자연실록 제품을 제공하고, 입사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작은 9월 8일 하림 자연실록 마케팅 공모전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와 SNS를 통해 발표하며, 시상식은 9월 15일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하림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세상을아름답게-제4산단 투자협약

2019년까지 130억원 투자... 친환경 기능성 제품 제조

익산시가 친환경 기능성 제품 제조 회사인 (주)세상을아름답게와 익산제4산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18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는 정현을 익산시장, 소병홍 익산시의회의장, (주)세상을아름답게 김철호 대표 및 회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식이 열렸다. (주)세상을아름답게는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3만9,002㎡ 부지에 13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화 이종필터 미세먼지 마스크 및 향균·탈취 종량제봉투 등 친환경 상품도 생산할 계획이다. 천연 신 유포체 및 천연방부제 개발, 토종 특용작물 및 국내 자생 식물을 이용 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화학적 메커니즘의 100% 천연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정부기관 및 산학 협력, 해외기술 수출 등을 통하여 세계 유수의 친환경 업체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는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1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제품으로는 아토피, 알러지, 바이러스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향균 및 살균 효과가 뛰어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류(Isothiocyanates, ITCs)를 활용하여 마이크로캡슐에 넣은 천연항균화장품과 유해세균 및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화장용 퍼프, 천연 향균 패치 등이 있으며, 이를 응용한 공기정

월명호수 공도교 개설공사 추진

군산시는 금년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사용 중인 월명공원 내 공도교를 철거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 경관으로 조성하여 월명공원을 산책하는 시민 및 장애우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제방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산시 수도과 관계자는 공도교의 확장 개설공사 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장현기 기자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진안고원 JINAN GOWON

眞心 홍삼주 19° 375ml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고원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